그리다 보니 절로 수행 되더라

비움의 미학 선보이는 법관 스님 '禪-2011' 展



칸딘스키는 자신의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예술은 정신작용임을 밝혔다. 예술은 대상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작품은 곧 작가의 마음이다. 예술적 행위를 수행으로 삼는 법관 스님은 그림을 통해 선(禪) 수행의 결과물을 보인다.

출가자에게 수행은 기본이다. 수행과 작품이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수행은 인식을 확장시키고, 그 인식을 통해 자연과 교감해 영혼과 소통케 한다. 법관 스님의 작품은 수행의 미학을 통해 동서양이 구분되지 않는 표현과 정신적 사상을 표현한다.

스님의 작품은 순일한 색감과 다양한 구도가 특징적이다. 모든 작가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만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차별화되는 색을 통해 자신만의 구도를 만들어냈다.

석채와 안료를 적절히 혼합해 정화된 순일한 색감을 만들고, 캔버스 안에는 자유로우면서도 다양한 조형성과 균형감을 드러내는 구성을 선보인다. 또한 흑백의 조화처럼 푸르름과 붉음으로 이뤄지는 조화의 균형감은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님 작품의 핵심은 비움이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와는 달리, 스님은 삶과 작품을 통해 하나라도 더 비우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금강경〉에는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작품들은 형상에 머물지도 않고 색상에 머물지도 않으며, 육근(六根)을 자극하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구름처럼 흔적이 없어 사라짐을 느끼게 한다.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 색을 잘 써야한다는 생각, 작품을 통해 명예를 얻고자하는 생각 없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스님의 생각이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구현됐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형상과 색에 마음을 소통하는 작업과정은 스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스님은 "수행으로, 수행삼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진지하게 그리다보니 수행이 됐고, 좋은 그림이 됐다"며 "나는 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수행의 목적 또한 아니다"라고 말한다.

스님의 작품은 좋은 그림보다는 맑고 지극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림이며, 수행을 통해 느낀 색감과 구도는 자유의 향연이다. 한 순간 마음속 깊이 비움을 느끼게 하는 스님의 '禪-2011'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4월 13~19일,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6일~5월 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6-1020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현대불교문학상' 발표

공광규·유자효·송기원·방민호 1000만원 상금 수여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중견 문인에게 수여되는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한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는 시 부문에 공광규(시인), 시조 부문에 유자효(시조시인·국제펜클럽 부이사장), 소설부문에 송기원(소설가), 평론 부문에 방민호(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광규 시인 '낙타의 인생' 외 4편, 유자효 시조시인 '번뇌' 외 4편, 송기원 소설가 '노량목', 방민호 평론가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다.

이번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 심사는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임헌형 문학평론가, 신달자 시인, 최동호 문학평론가, 장영우 문학평론가, 홍성랑 시조시인, 박수완 시인, 문혜관 시인 등이 참여했다.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은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가질 예정이며, 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이은정 기자

전시일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용천청자를 주제로 '차와 향, 그리고 혼을 담다-신안 용천청자' 전을 6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는 용천청자 약 90여 점이 공개되며, 이 중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여 점이 포함돼 있다. 전시는 용천청자의 기종, 용천청자의 유색과 문양 등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용천청자에서 파생된 여러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02)2077-9000

■강원도 영월 쾌연재 도자미술관은 5월 1일까지 동북아불교 미술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 미타(彌陀)의 미소(微笑)'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불교미술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미술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한봉석, 정화석, 김상수, 이완규, 김판기 등 국내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화가, 조각가, 공예가들이 참여한다. (033)372-8436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③

자비를 깨달은 샤갈



강도 9.0의 대지진으로 일본의 동북부는 깊은 비탄에 잠겼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수문을 닫으러갔던 소방관은 정작 본인의 가족은 모두 잃고 혼자만 남아 오열했다. 살아있을 거란 희망만을 품고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로 가족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도 있다. 가족을 잃은 사연 하나하나가 애달프지 않은 것이 없다.

비극적인 시련을 몇 차례나 겪고도 항상 사랑을 노래한 서양화가가 있다.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라고 말하는 샤갈이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그는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러시아의 이주 빈민촌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는 가난했고, 유태인이란 이유로 핍박 받았다. 세계1·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고향의 동포들이 학살당했고 그의 작품은 불태워졌다. 미국 망명 중에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그때 이미 명성 있는 화가로 성공했었지만 그의 민족적, 개인적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은 삶의 본질 그 자체 이다"

비극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사랑을 화폭에 담았다. 사별한 부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도 환상과 꿈의 세계를 그려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 샤갈은 고통보다는 삶의 본질인 생로병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 죽음, 전염병,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겪으면서도 밝고 힘찬 색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샤갈은 사랑의 대상을 삶 자체로 여기며 자신의 화폭에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 이 에너지는 그의 역동적 상상력에서 부여되는 영혼의 힘인 것이다.

불교는 자비(慈悲)를 말한다. 자비는 사랑과 보시의 기쁨이다. 불교가 사랑에 대해 터부시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불교는 사랑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한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본질을 파악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것 아니던가.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의 굴레지만 우리는 늘 행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여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단한 몽상가였던 그는 꿈과 현실을 한 공간에 그려 넣었다. 그는 꿈을 통해 그리운 고향에 가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라 다닌다. 행복한 꿈을 꾸고 현실에서는 꿈을 그리는 그의 작품관이 20세기의 비극의 중심에서도 사랑을 외칠 수 있게 한 원동력 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선지식들은 세상살이 모두가 꿈이라고 말했다. 어제 밤 꿈은 춘몽이고 생로병사의 인생은 대몽(大夢)이다. 샤갈도 "나는 다만 보는 것, 꿈꾸는 것을 그릴뿐이다. 그 형태는 다르더라도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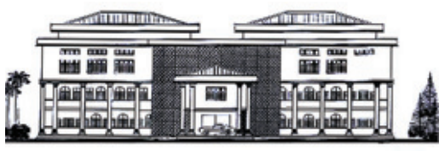
얼마 전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열린 샤갈전에는 3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 조은영(경희대 예술경영대학원) 씨는 주말에는 입장하기 위해 2시간씩 줄을 선다고 한다. 대중들의 문화적 기호가 높아져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를 중심으로 미술 전시회가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들에게만 유독 영험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사막 같이 팍팍한 삶에 단비가 내리길 원하는 이들에게 샤갈처럼 삶의 모든 대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